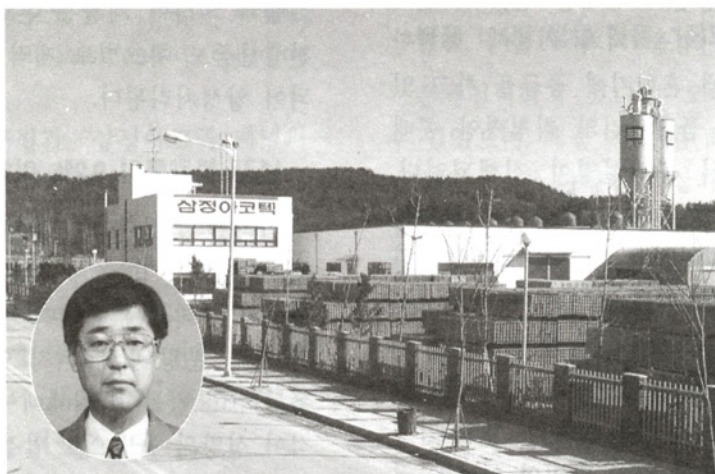


## 역사와 예술의 만남을 “청지기 정신”으로

(주) 삼정아코텍 부여공장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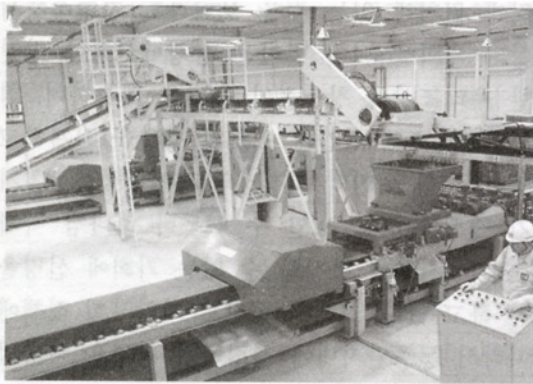
녹색환경을 일구는 삼정아코텍의 축적된 기술력으로 건식 패널(상품명 : 三正아코텍)을 제조하는 본 공장은 부여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백제의 옛 서울답게 유물들에 대한 홍보물이 눈에 띄고 있었다. 백제문화의 일본전과 중에는 와공(瓦工)도 함께 보낸 것으로 기록에 있을 정도로 흙을 굽는 데는 정통한 문화를 갖고 있으며, 서기 500년 전후로 해서 백제 왕릉의 4면이 벽돌로 축조된 전곽분(博鄗墳)이나 아치형의 전축분(博築墳)인 것을 보더라도 토기 제조에 대한 전통이 깃들어 있는 역사적인 본 고장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

어 받아 금강을 끼고 있는, 모래가 고운 칠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자연속에서 삶의 과학을 이어 받아온 삼정아코텍이 발견한 우리조상의 창조적인 능력을 계승하여, 최첨단과학으로 인간의 조화된 생활을 설계하고 있다. 또한 이기억 회장님의 경영철학인 “청지기 정신”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 작게는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신명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공장도 지역사회 정책에 따라서 농공단지내에 설립하여 김대유 사장님께서 경영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첨단설비도입을...

본 공장(대지:18,087㎡, 설비:2,192㎡)은 1992년 1월 16일 핀랜드의 ACOTEC 회사와 설비 도입 계약을 체결한 후 부여군에서 장려하고 있는 임천농공단지에 국가시책에 따라서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입주하여 향토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건축용 경량콘크리트 판넬과 차음용 칼라 방음벽을 제조하는 공장의 시스템에 대하여 공장장님의 안내를 받았다. 원재료 투입 직전에 시험을 거쳐 기준에 적합한 원료만 선별한 후에 혼합기에 공급을 하고 있는 제일 관문으로 품질관리의 최첨병인 콘베어 투입기에서부터 공정설명이 진행되었다. 혼합과정에서도 조성 원료가 편중되지 않도록 계량, 혼합 및 성형과정을 원격장치로 감시하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감시실에 들어서면 마치 화학공장의 컨트롤 룸에 들어선 것 같았다. 또한 원료 혼합이 계량장치에 의해서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들의 성형 방법이 특이하였다. 단순한 압착 방법이 아니라 일정한 회전수(rpm)에 따라서 진동을 주면서 익스트루더로 압출시키면서 요구 규격에 따라서 제품을 성형하고 있었다.



[진동 압착·압출기]

성형과정에서도 1차적으로 기본형틀 규격에

맞추고 2차에 걸쳐서 수요자 요구, 건축물 규격에 부응하여 제조하고 있다. 절단과정도 특이하여 블로잉 과정을 거쳐 굳어더기가 붙어 있거나 모서리가 흩어지는 사례를 볼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파렛트에 적재되기 직전에 치수 등에 대한 규격, 및 외관검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사과정에서 규격미달이 발견되면 부적합품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이재기로 옮겨져 콘베어 시스템에 의하여 재활용 혼합기로 투입되고, 중간생산품도 룯트별로 제작일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양생처리된다.

#### 년간 불량률이 0.2% 이하라니...

이러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용한 결과 연간 불량률이 0.2%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며, 생산된 완제품에 대한 불량률은 5년 동안 2대의 트럭 분량 밖에 되지 않아서, 폐자재를 활용하려고 방문한 업체에서는 폐자재가 너무 적어 실망의 눈빛으로 발길을 돌린단다.

옥외 노천시험장으로 가는 길에는 울긋불긋한 담벼락이 보여 이상해서 물어 보았더니, 5년전부터 단계별로 Coloring Pannel을 제작하여 변색여부와 시멘트 특유의 백화 상태를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1차 외부 씻김과 2차 내부 유출에 대하여 관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강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웬 모델하우스 ?

모델하우스도 눈에 띈었다. 내부를 살펴보니 생산제품을 실제로 아파트 모형에 적용하여 건식부재의 문제점을 실험적으로 해결하려고 실물구조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 제품 자랑보다는 해결 할 문제점에 ...

오중식 공장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해결할 과제로 제품물성 향상, 현장 시공성, 접합부(joint) 및 줄눈 처리, 경량골재의 물성 다변화, 등으로 이들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이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이루어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고 한다.

외부 유명기관과 합동으로 연구한 사례로는  
 ①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와 “공동주택 건식경량내벽체 개발연구” [Light-weight Partition Wall of Residential Building (97.4.)]

②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삼정아코텍 패널의 성능평가 및 적용증대를 위한연구” [SAMJUNG ACOTEC Panels : Performance Properties and a Feasibility Analysys for Residential Building (93. 8)] 등이 있다. 이렇게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품질시스템 인증서, 내화구조 지정서, 차음구조 지정서 등을 취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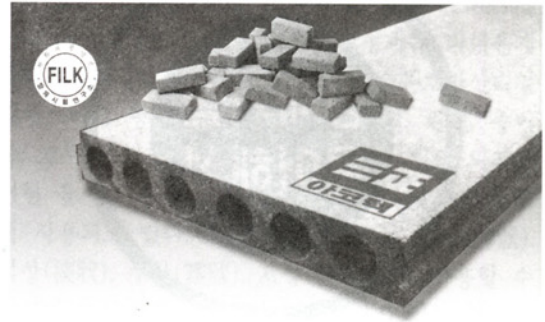
앞으로 연구개발 할 중점사항으로는

1.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 연구
2. 현장 활용 방안
3. 자체 개발 차음성(형) 방음벽 개발
4. 무기염료 적용시 시멘트 백화 극소화 방안 강구
5. 강도를 유지하면서 경량화 추구에 매진 할 것이며.

역점사업으로는

1. 조립식 부재의 특성에 따른 획일화 추구
2. 소비자 성향에 부합하는 맞는 다양한 제품 제공
3. 조인트의 결합-긴결제, 관련업체의 요구에 따른 외장 사용재료 개발

4.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등이 있다고 한다.



**벽돌 125장 쌓을 것을, 1장의 아코텍으로...**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포부를 엿볼 수 있었으며, 제품 자랑 좀 하시라니까 공장장님 말씀이, ① 다양한 색상과 표면문양이 아름답게 가공되었으며, ② 경제적인 가격으로 공사비가 절감되고, ③ 엄격한 품질관리 및 자동 생산설비에 의해 생산되는 규격제품으로 신속한 현장시공이 가능하고, ④ 유지보수가 용이한 것이 장점이고, 시공한 건물도 현대중공업 등 상당히 많다고 한다.

**기술연구소 설립운영으로 기술개발에 매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경량골재원료로 100여 가지가 진열된 시험실에서 와서는 정열적이던 설명도 Know How가 숨어 있는 탓인지 간단한 특성 설명으로 끝내고 김대유 사장님의 의지가 배어 있는 진열품이라고 귀뜸을 해준다.

인류의 공동이익을 창출하여 사회에 공헌한다는 창업이념과 훌륭한 인재육성과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고,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여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겠다는 경영이념을 현장에 다니며 구석구석에서 느낄 수 있었다. 